

[TV]

TV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E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김수현 작 '내 남자의...' 표절 시비 휘말려

류경옥 씨,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김수현 작가의 SBS 인기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가 19일 종영을 앞두고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18일 "류경옥 씨가 '내 남자의 여자'의 김수현 작가 등을 상대로 14일 저작권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94년 KBS 드라마 공모에 입상한 바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의 기간을 두고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내 남자의 여자' 제작사 삼화네트웍스는 "상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며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조정 신청에 앞서 자신에게 이 같은 주장을 했던 사실을 자세히 전하면서 "자다가 오물 뒤집어쓰고 흐트러진 리듬 때문에 작업은 완전 물건너가고 오늘 하루 황 그쳤습니다. 분해 주겠습니다. 살다보니 참 불행임을 다 당합니다"라며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했다.

미국 유학 위해 '위장 입학'까지

SBS '뉴스추적', 일그러진 유학 실태 보고

20일 밤 11시 15분 방송. 거리가 아빠가 사회 문제가 되더니 이제는 자식 유학을 위해 생면부지 남에게 '위장 입학'도 시키는 세상이 됐다. 우리는 과연 무엇이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 20일 밤 11시 15분 방송되는 SBS TV '뉴스추적'은 미국 유학을 위해 낯선 사람에게까지 자식을 입학 보내는 '위장 입학 유학'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발한다. 유학을 위해 흑인과 가족이 된 호영(16)이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입학 가족과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친구의 고모에게 위장 입학된 윤주(16)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난소암까지 걸렸다. 제작진은 "취재를 위해 미국 서북부 지역에서 만난 9명의 학생 가운데 무려 6명이 입학 유학생이었다"면서 "이들은 대부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친인척이나 교민, 심지어 전혀 알지 못하는 미국인에게 위장입양돼 가족과 생이별 중이었다"고 전했다.

프로그램은 1억2천만 원에 각서 한 장이 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위장 입학 유학 과정을 파헤친다.

제작진이 만난 경력 25년의 입학 브로커 박모 씨는 "최근에도 16명이나 입양을 보냈다. 상당 대기자 수단 해도 입양한다"며 학부모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제작진은 "박씨의 증언을 통해 위장 입학 유학의 현수표를 살펴보면 위장 입학·불법 체류에 이어 편법 입학까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일그러진 유학의 실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Living World Wild Best - Still Not a Hot Air Balloon (11시). 세계적 여행 저널리스트들과 여행 기획자들의 의견을 찾아 순위를 선정해 각각 장소에 대한 특징과 역사, 얽힌 이야기 등을 소개한다. 요즘 여행 추세는 여행지에 가서 가만히 휴식만을 취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스릴 있고 가치 있는 걸 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할 수 있는 흥미로운 모험거리들에 대해 알아본다. 높은 봉우리를 오름으로써 성취감을 느끼는 등산, 환상적인 바다 속을 헤엄 할 수 있는 스쿠버 다이빙, 너른 바다에서 파도를 타며 스릴을 느끼는 서핑이나 카이트 서핑, 하얗게 부서지는 거친 급류를 타는 급류타기 등, 평생 잊지 못할 스릴 넘치는 모험거리들을 소개한다.

케이블·위성TV 19일

Large table listing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MBC MOVIES, OCN,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Living World Wild Best - Still Not a Hot Air Balloon (11시). 오래된 보청기(스타키) 보상판매 30%, 견전지(بات데리) 가격인하. 창업 25년. 국제보청기 본점 (동구청 남동성당사) (062) 227-9940, 충장점 (금남공원앞) (062) 225-9970.